

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

보도자료 Press Release



배포일시	2016. 4. 18.(월) 10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장 박종서
		전화번호	070-7850-8335

수도권기상청, 기후변화대응의 첫 발을 내딛다!
- 『2015년 수도권 기후자료집』 발간

- 수도권기상청(청장 남재철)은 지난 한해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의 월별·지역별 기후특성을 분석한 ‘2015년 수도권 기후자료집’을 발간했다.
 - 이번 기후자료집은 수도권기상청의 신설 1년을 맞이해 발간되는 기후 통계자료로 2015년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의 기후 특성과 기온, 강수량, 풍속 통계 자료를 상세히 분석해 기술되었다.
- 2015년 한해 수도권에서는 연평균기온 최고값, 연강수량 최소값 등을 기록하여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각종 극값을 경신하였다.
 - 수도권의 연평균기온은 13.1℃로 30년(1981년~2010년) 평균값(11.9℃)보다 1.2℃ 높으며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. 지역별로는 수원의 연평균기온이 13.5℃로 30년 평균값(12.1℃) 보다 1.4℃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.
 - 연강수량은 709.8mm로 30년 평균값(1336.0mm)의 53%로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면서 가뭄이 나타났고, 9월 강수량은 30년 평균값의 13.6%로 매우 적었다. 특히, 강화군의 연강수량은 647.3mm로 30년 평균값(1347.8mm)의 48%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.

- 겨울철(2014년 12월~2015년 2월)에는 몽골남부와 중국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**짙은 황사**가 나타났다.
 - 2월 22일~23일에 기록된 황사의 최고 농도는 서울 $1044\mu\text{g}/\text{m}^3$, 강화 $1037\mu\text{g}/\text{m}^3$, 백령도 $983\mu\text{g}/\text{m}^3$ 이며, 이번 겨울철 서울의 황사일수는 6일로 1908년 이후 최다 1위를 기록하였다.

-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지역의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수도권 기후자료집을 발간하여 지역민과 유관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수자원관리, 농수산업 등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※ 「2015년 수도권 기후자료집」은 ‘수도권기상청 홈페이지 > 공지사항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발간등록번호
11-1360000-001258-01

2015년 수도권 기후자료집

